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

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

서른 나문 해야

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**날로** 굳어

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(年輪)

갈매기처럼 꼬리 떨며

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

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

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

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

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

나도 **또한** 불꽃처럼 **열렬히** 살리라

- 김기림, 『연륜』 -

(나)

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

**한꺼번에** 싸게 사서

**마구** 쓰다가

망가지면 내다 버리는

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

나는 **당장**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

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

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

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

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

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

모루 위에서 벼리고

숫돌에 갈아

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

땀 흘리며 두들겨 **하나씩** 만들어 낸

꼬부랑 호미가 되어

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

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

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

**온통** 부끄러워지고

직지사 해우소

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

똥덩이처럼 느껴질 때

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

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

- 김광규, 『대장간의 유혹』 -